

깊이 들여다보는. 이슬람 읽기 04

기독교 속에 들어온 이슬람

유해석 (FIM국제선교회 대표)

깊이 들여다보는. 이슬람 읽기

- 01. 한국의 이슬람
- 02. 기독교와는 너무 다른
- 03. 이슬람의 믿음
- 04. 기독교에 들어온 이슬람

* 이슈칼럼은 하나의 이슈에 대해 심도있게 4개월간 연재됩니다.



지난 2월 16일 이집트 시내반도의 성 캐트린 수도원(Saint Catherine's Monastery)을 방문하고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 국경인 타바에서 비자 수속을 밟으며 대기하고 있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인 안사르 베이트 알마크디스(Ansar Bayt al-Maqdis) 대원의 자폭테러로 5명이 죽임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중에는 필자와도 친분이 있는 현지여행사 사장 제진수 씨도 있어 마음이 많이 아팠다. 전 세계 테러의 80%는 무슬림들이 일으킨다. 지난 9.11 사태 때, 가족을 잃은 한 여인이 들고 있던 피켓이 생각난다.

“Not all Muslims are terrorists, but all terrorists are Muslims.”

(모든 무슬림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테러리스트들은 모두 무슬림이다.)

그렇다면 왜 무슬림들이 이처럼 테러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일까?

바로 이슬람의 세계관 때문이다. 이슬람은 세상을 전쟁의 집(Dar al Harb)과 평화의 집(Dar al Islam)으로 나눈다. 이슬람의 지배를 받는 곳은 평화로운 곳이 되고, 이슬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곳은 전쟁의 대상이기에 전쟁의 집이 된다. 예를 들면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이슬람을 창시(A.D. 610년)하자 그가 속했던 쿠라이쉬 부족의 핍박이 시작되었는데 이곳을 전쟁의 집으로 묘사한다. A.D. 622년 메디나로 이주한 후부터 무함마드는 칼을 들어 72번의 전쟁을 주도하게 되는데, 그 중 27번은 직접 지휘하였다. 드디어 메디나가 이슬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자, 평화의 집이라 부른다. 또, 이슬람법인 '샤리아'에 의해 통치되는 이슬람 지역은 평화의 집이 되고, 이슬람의 영향 아래 있지 않은 지역은 전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쟁의 집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이슬람이 전쟁의 집을 평화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 치루는 전쟁을 지하드라고 한다. '지하드'(jihad)는 '자아 드'(jaahad 스스로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동사의 동명사로, 뜻은 '애쓰, 노력, 또는 불만, 불찬성 및 비난의 대상에 대하여 투쟁하는데 자신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이슬람 연합에는 지하드를 "싸우다"의 뜻으로 정의한다.

기독교가 '믿음'을 강조한다면, 이슬람은 '행동'(즉, 알라의 뜻을 따르고자 행동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런 면에서 율법을 따르는 유대교에 더 가깝다. 꾸란은 무슬림들에게 행동하고, 싸우며(jihad, 성전), 자신의 신앙을 실천하고, 이슬람 종교를 수호하며, 전 세계를 이슬람화 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지하드는 오늘날 원리주의자들에 의해 "테러"의 형태로 부활하고 있다.

이슬람의 지하드 즉, 무슬림에 의한 테러는 이슬람의 구원관과 관계가 있다.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 의하면 이슬람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이다.

첫째는 속명론에 근거한 알라의 일방적인 선택(꾸란 9:51)이고, 다음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 구원에 도움이 된다(꾸란 23:102-103). 셋째,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의 카바 신전으로 성지 순례하는 것이 구원에 도움이 된다(꾸란 3:97). 그러나 이 세 가지의 경우 죽어서 알라 앞의 심판대에 서봐야 구원의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불확실한 구원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간다.

그러나 구원이 확실히 보장되는 경우가 있다. **넷째, 지하드에 참전했다가 "순교"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한 꾸란의 구절은 다음과 같다.

"그로 하여금 알라의 길에서 성전케 하여 내세를 위해서 현세의 생명을 바치도록 하라. 알라의 길에서 성전하는 자가 살해를 당한군 승리를 거두건 그에게 크나큰 보상을 주리라." (꾸란 4:74)

"알라의 길에서 순교한 자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들은 알라의 양식을 먹으며 알라의 곁에 살아있노라." (꾸란 3:169)



꾸란은 무함마드가 A.D. 610년부터 23년 동안 받은 계시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현재의 꾸란은 무함마드가 죽은 후에 3대 후계자인 우스만(Uthman)이 653년에 편집한 것이다.

꾸란에 나타난 지하드 관련 구절은 모두 109절이다. 꾸란에 따르면 순교하는 것은 알라에게 가장 큰 영광이다. 순교를 뜻하는 헬라어 '마르투리온'(marturion)이 증인을 뜻하는 '마르투스'(martus)에서 발전된 것처럼, 이슬람의 순교란 말도 무슬림의 믿음의 고백(shahada, 샤하다)에서 나왔다. 그 고백은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선지자"라는 것이다.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확장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지하드를 사용하는 주된 동기는 지하드에서 죽은 사람, 즉 '샤히드'(shahid 증인)라 불리는 사람은 곧바로 천국으로 간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지하드 중 죽은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들과 다른 장례절차를 적용한다. 일반적인 경우 시신을 씻기고 모스크에 가는 것처럼 좋은 옷을 입힌다. 그러나 지하드 중 죽었을 때에는 시신을 씻기거나 옷을 입히지 않고, 죽은 상태 그대로 관에 넣는다. 몸에 묻은 피는 알라 앞에 증거이자 명예로운 상징이 되어 천사들이 알라 앞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무함마드가 사망한 632년 이후부터, 포교활동과 무역, 지하드가 결합된 신흥종교인 이슬람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중동에 본거지를 둔 여러 이슬람 제국들이 북아프리카와 이란, 인도, 동남아 대륙, 이베리아 반도 및 발칸 반도를 장악하자, 무슬림들은 지하드에 굴복한 이교도에 비해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확신했다. 이처럼 이슬람 제국은 지하드를 통해 7~17세기까지 그 영역을 확장했다.

비잔틴 기독교제국이 무너지다

오늘날의 중동과 북부 아프리카는 무슬림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원래 이 지역은 무함마드가 역사에 등장하기 전까지 약 4세기 동안 기독교제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사도시대부터 지중해 세계에 기독교가 확장되어 A.D. 500년 이전까지 기독교를 대표하는 5교구, 즉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지금의 이스탄불), 로마 등이 자리 잡았다. 북부 아프리카 교회들은 초기 기독교 역사에 빛나는 3명의 위대한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을 배출했다. 2세기의 뛰어난 변증가인 터툴리안(Tertullian), 3세기의 열정적인 교회 설립자인 키프리안(Cyprianus), 바울 이래 최고의 신학자인 4세기의 어거스틴(Augustine) 등 위대한 지적, 영적 거장들의 지도하에 발전한 북부 아프리카 교회는 약 500교구, 당시 기독교 전체교구의 4분의 1에 해당했다.

그러나 지하드를 통해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한 이슬람 군대는 그 광대했던 비잔틴 기독교제국을 공격목표로 삼았다. 636년에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가, 638년에 예루살렘이, 640년에 이집트가 이슬람의 수중에 들어가더니, 692년 압둘 말리크(Abdul Malik)에 의해 북부 아프리카는 완전히 정복되었다.

그렇다면, 무함마드 사후 불과 60년 만에, 찬란했던 비잔틴 기독교제국이 무기력하게 이슬람에게 정복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비잔틴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과의 오랜 영토전쟁으로 지쳐 있었다.

둘째,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로, 현지어인 콥트어나 베르베어 등으로 보급되지 못해 토착지방에 깊게 뿌리 내리지 못했다. 따라서 수적으로는 강했으나 영적으로는 약할 수밖에 없었다. 교회

는 라틴문화와 교회권력과 간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셋째, 이러한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은 복음적인 신앙과 열정을 잃어버렸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열정으로 전파된 복음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제의 지배권과 더불어 성장한 성례전의 반전 하에 질식되어 갔다. 그들은 첫사랑을 잃은 지 오래였다.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되어 버렸다. 넷째, 신학적인 논쟁은 교회의 세력을 약화시켰고, 수많은 이단들을 양산했다. 이단들은 많은 세금을 내야 했고 내적으로 비잔틴 기독교제국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슬람이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고 하자, 이슬람을 해방군으로 맞이하게 되었다. 이집트도 단성론으로 인해 이단으로 간주되었고, 이슬람 군대가 들어올 때 콥트교 사제들이 문을 열어주었다.

유럽은 유라비아가 될 것이다

비잔틴 기독교제국이 이슬람에 정복된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유럽은 기독교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점점 이슬람 인구가 늘어가고 있다. 1970년에 720만 명이던 것이 2007년에는 5,300만 명으로 늘어났다. 영국에만 280만 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으며(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550만 명으로 추정된다), 1,800개의 모스크와 3,000~5,000개의 꾸란 학교가 있다. 독일의 경우 430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으며, 2,600~3,000개의 모스크가 있다. 프랑스가 가장 심각한데 600만 명의 무슬림과 1,300개의 모스크가 있다. 서유럽 3개국에만 약 6,000개의 모스크가 있는 것이다. 히브리대학의 이스마엘 라파엘 교수는 유럽은 유라비아(유럽+사우디아라비아의 합성어)가 될 것이라고 했으며, 프린스턴대학의 이슬람 학자 버나드 루이스는 "유럽은 금세기 안에 이슬람화 될 것이다."라고 공언하였다.



이집트 사해반도에 있는 모스크, 사막에 모스크를 건립한 것은 이 곳에 알라의 땅이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_PHOTO BY 유해석

그렇다면 유럽이 이슬람화 되어 가는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아랍 및 이슬람 국가로부터의 이민이다. 2차 세계대전 후 경제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해외로부터 값싼 노동력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영국은 식민지였던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에서, 프랑스 역시 식민지였던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에서, 독일은 동맹국이었던 터키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왔다. 유럽 각 나라들은 약속된 노동계약이 끝나면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줄 알았다. 그러나 자국에는 일자리가 없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유럽에 그대로 정착하길 원했다.

이민 초기에는 사회 최하위층 근로자들이었으나, 시간이 흘러 이슬람 국가 이민자들이 유럽 사회에 적응하게 되면서 이들의 문화와 종교가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었다. 유럽 이슬람의 역사와 성장은 이처럼 이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둘째, 무슬림의 다산이다. 유럽연합 평균 출산율은 2013년 말 기준으로 1.5명이다. 한 문명이 25년 이상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 가정당 2.11명이 되어야 한다. 출산율이 2명 이하인 문명은 퇴보하게 된다. 1.9명 이하인 문명은 회복하지 못한다. 역사적으로 1.3이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출산율 저하에 따라 문명도 쇠퇴한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황금 돔 사원, 아랍어로 베이트 알마크디스(Bayt al-Maqdis)라고 부른다.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폭탄테러를 한 단체는 '안사르 베이트 알마크디스(Ansar Bayt al-Maqdis) 원래 유대인으로부터 이 사원을 지키기 위하여 설립된 원리주의단체이다. PHOTO BY 유해석

그런데 유럽의 이슬람 인구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무슬림의 높은 출산율 때문이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평균 1.8명이다. 그런데 20세 이하의 30%는 무슬림이다. 2027년까지 무슬림은 전체인구의 45%까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영국의 무슬림은 30년 사이에 82,000에서 280만 명으로 증가했다. 영국의 무슬림 여성은 평균 6~7명을 출산한다. 다산에 의해 이슬람 인구가 유럽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결혼이다. 꾸란에 의하면 무슬림 여성은 무슬림 남성과 결혼해야 하지만(꾸란 2:221), 무슬림 남성은 유대인·기독교인·무슬림 여성과 결혼이 가능하다(꾸란 5:5). 또, 무슬림 남성이 유럽의 기독교인 여성과 결혼하여 낳은 자녀는 이슬람법에 따라 이슬람 종교를 갖게 된다. 꾸란은 무슬림 여성에게 독신을 허용하지 않는다(꾸란 24:32). 이슬람은 꾸란에 근거하여 독신주의를 배격한다. 또한 이슬람의 일부다처제도는 유럽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인권을 중시하는 영국에서는 일부다처로 인한 부인들에게 연금을 주는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슬람은 이처럼 결혼을 통해서도 급성장하고 있다.

넷째, 유럽인들의 탈교회화와 새로운 신앙의 추구이다. 독일의 경우, '종교세'가 있어 기독교인들은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다. 현재 유럽교회에서는 젊은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영국교회의 53%에 주일학교가, 86%에는 중·고등부가 없다. 또한 지난 30년 동안 5,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폐쇄된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미 700곳 이상의 교회가 모스크로 바뀌었다.

나가는 글

한국에서도 이슬람이 성장하고 있다. 유럽과 같은 이유이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한국의 인구가 줄어 들고 있을 뿐 아니라 자국인의 3D 업종 기피현상으로 현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인구의 14%(643만 명)를 수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까지 350만 명의 외국인인 한국에 정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외국인들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 이슬람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157만 명의 외국인 가운데, 138,000명(법무부 통계)이 무슬림이다. 또한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한국인(71,000명, 2011년 기준)도 늘고 있다. 2013년 6월 법무부 통계를 근거로 보면, 한국인과 결혼해서 국내에 머물고 있는 국제결혼 비자 체류자는 148,746명이다. 이중 주요 이슬람 12국 출신은 모두 4,935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에서 자라는 무슬림 자녀들 또한 늘어가고 있다.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무슬림 인구는 약 23만 명에 이른다.

필자는 10년 전에 쓴 책 〈이슬람이 다가오고 있다〉(쿰란출판사)의 서문에 “어느 날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주변 이웃들이 이슬람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슬람에 대하여 배워야 한다.”, “한국은 10년 안에 무슬림 인구 20만 명에 이를 것이다.”라고 했다. 결국 그 서문은 현실이 되었다. 한국은 앞으로 10년 안에, 이슬람 인구 100만 명 시대에 이를 것이다.

※ 지금까지 이슈칼럼 〈깊이 들여다보는 이슬람 읽기〉였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FIM선교회 유해석 선교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해석 총신대학교를 졸업, 영국 웨일즈대학교 신학부에서 공부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파송 선교사, OM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1990년부터 이집트 빈민가에서 사역하였으며 지금은 영국과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FIM국제선교회 대표로 영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역하고 있다. 총신대학교와 서울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였으며, 한국선교협의회(KWMA) 실행위원과 유럽코스타 강사 및 선교분과장, CTS 기독교 TV 특강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우리 곁에 다가오는 이슬람', '토마스 목사전, '만화 이슬람', 등이 있다.



비옥한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강변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 지금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하여 고향을 받고 있다. PHOTO BY 유해석

이제 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이 어떤 종교인지 알아야 한다. 이슬람은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이기 때문이다. 꾸란의 약 60%는 구약성경에 대한 내용이고 약 6~7%는 신약성경에 관한 내용이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J. Calvin)은 1550년에 집필한 데살로니가후서 주석에서 “무함마드는 배교자요 이슬람은 이단이다.”라고 밝혔다. 둘째, 교회가 건강해야 한다.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한때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Back Sliding Christian)이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몰락하고 있는 것인가? 엄밀히 말해서 복음은 망하지 않는다. 전 세계 복음주의적 기독교는 이슬람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이슬람권 안에서도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교회,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사라진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이슬람에 대해 선교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무슬림들 대부분이 성경적 복음을 듣지 못했다. 20만 명이 넘는 무슬림 공동체가 한국 안에서 미전도 종족(Unreached People)으로 소리 없이 성장하고 있다. 누군가 그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제 조국교회는 한국으로 이주하는 무슬림에 대해, 적절하고 분명한 선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